

오순절 후 열다섯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9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305)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7 번 이사야 (Isaiah) 40 장(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히브리서(Hebrews) 11:30-31</b>	이선호 집사
설 교 Sermon	“ <b>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였도다</b> ” <b>(Faith Doesn't Perish)</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90 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새 43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단단해져서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었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져서 죄 가운데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회개와 믿음도 막연한 생각과 관념으로 여겼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34:18, 율 2:13 상)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한글개역 히 11:31)

“By faith Rahab the harlot did not perish along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after she had welcomed the spies in peace.” (NASV Hebrew 11:3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3 (주일)	9/14 (월)	9/15 (화)	9/16 (수)	9/17 (목)	9/18 (금)	9/19 (토)
본문	삼하8,9	삼하10	삼하11	삼하12	삼하13	삼하14	삼하15
	고후2	고후3	고후4	고후5	고후6	고후7	고후8
	겔16	겔17	겔18	겔19	겔20	겔21	겔22
	시58,59	시60,61	시62,63	시64,65	시66,67	시68	시69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16 오후7:30)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자” (민 26:1-4,51-58)
토요 새벽기도회 (9/19 오전6:30)	“사람이 무엇이관대” (시 8:1-9)

지난 주일(9/6)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히 11:23-29)

복음전도자 무디(DL Moody)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가리켜,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 (Somebody)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40 년을 보냈지만, (그 다음) 40 년은 그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 (Nobody)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 후)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 것도 아닌 사람 (Nobody)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10)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실천하며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첫째, 믿음에는 반드시 선택과 더불어 포기(내려놓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고(히11:24-26), 2)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며(히11:27), 3)셋째, 행동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어도, 믿음은 결코 모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히11:28-29). 단지 흉내만 내거나 모방하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